



# 원광대 의예 합격!

강남대성학원 자연 17반 윤하람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1월에 강남대성 자연별관에서 수학 집중반을 듣고 2월부터 강남대성 본원에서 공부한 윤하람입니다. 현역 때는 6월, 9월 모의평가에서 수학이 4등급이 나올 정도로 실력이 부족했지만, 재수를 하면서 모든 평가원 시험에서 국어, 수학 1등급을 받게 되었고, 화학2를 선택하고도 결과적으로 원광대학교 의예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 ① 태도

재수 1년은 고등학교 3년, 더 나아가 학창 시절 12년에 비하면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동안 지금까지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고 싶다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시간을 남들보다 더 쏟아붓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가 수능과 공부에 대해 가져왔던 믿음과 태도까지도 틀렸음을 인정하는 게 시작입니다.

수능에서 의미 있는 건 오직 점수뿐입니다. 찍든, 풀이의 비약이 있던 맞추기만 하면 되고 반대로 틀리면 어떤 이유에서 틀렸든 그냥 틀린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점수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어진 시간 내에 점수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화작이 어려울 때, 제대로 푼 거 같은데 답이 없을 때, 10분 남았는데 5문제 남았을 때 등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미리 연습해놓고 시험장에서는 침착하게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평가원 모의고사는 물론이고 더프리미엄, 강대모의고사를 볼 때도 실제 수능 시험장이라고 생각하고 점수에만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하는지,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서 실제 수능 때 행동할 매뉴얼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반면에 평소 공부는 실력을 쌓는 공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하나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고 문제를 푸는 생각의 과정을 완전히 몸이 외우게 만들어서 시험 때 기계적으로 풀 수 있게 하는 게 평소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거지만 수없이 반복해서 난 그걸 생략하고 이렇게 바로 넘어갈 수 있어'라고 미리 준비해 놓는 것들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또한 평소 공부에서는 '어떻게' 보다 중요한 게 '얼마나'입니다. 일반적으로 방법의 차이, 콘텐츠의 차이는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인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강대에서 공부하면서는 '어떻게'의 문제는 전적으로 선생님들을 믿고 따랐습니다. 기본이 되는 수업시간부터 자습시간 운영, 모의고사와 숙제의 밸런스, 연간 일정까지 체계적으로 잘 짜여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할 시간에 그냥 귀를 열고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대로 했습니다. 주말자습은 일 년 동안 단 한 주도 빼놓지 않고 토, 일 20시간 이상 자습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모든 숙제를 다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나태해지지 않고 꾸준히 달릴 수 있었습니다. 방향을 믿고 맡겼기에 저는 달리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 ② 과목별 공부 방법

수업 때 배웠던 것들 중 자기 실력으로 만들어야 되는걸 수업 때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결코 본인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원에서 준 수능사고력노트를 1년 동안 꾸준히 사용했습니다. 매일 그날 수업하고 나서 쉬는시간이나 점심시간, 자습 때 그날 배운 의미 있는 내용들을 옮겨적어서 그 부분만 복습하기 편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는 구문이나 단어 뿐 아니라 지문의 흐름을 보는 순서라거나 마인드를 적어놓았고, 화학에서는 문제 유형별 풀이법과 접근법 등 생각하는 방식을 기계적으로 외워두고 수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수학에서 수능사고력노트는 실력 상승에 결정적이었습니다. 개념에 비해 응용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고난이도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는 수학에서는 선생님들이 알려주시는 테크닉을 흡수하는 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약한 문제들을 수업 때 배운 방법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풀었고, 실제 수능 수학 27번에서 안형국 선생님, 심용선 선생님이 푸셨던 방식 그대로 문제를 깔끔하게 풀 수 있었습니다.

수능사고력노트를 활용하기 힘든 과목이 국어입니다. 국어는 수학, 과학과 달리 명료하게 딱 떨어지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답인 이유를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하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가 고정 1등급, 고정 100인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남을 납득시키기는 힘들어도 자기가 정답을 고르는 건 명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문학에서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그래서 결국은 기출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기준을 잡아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 방법은 김우영 선생님이 제시해주신 국어 공부 방향인데, 2008년 6평부터 작년 수능까지 하루에 3~4지문씩 시간제한 없이 풀면서 모든 선택지의 정오 근거를 파악하고, 버벅거리거나 정확한 판단이 안 되는 문제는 체크해줬습니다. 해설은 최대한 보지 않으려 노력했고 정말 혼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문제들은 모아서 매주 화요일마다 선생님께 질문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현역 6,9,수능에서 각각 1,2,3등급이었던 제가 재수 6,9,수능에서는 한 번도 백분위 98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고정 1등급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